Vowels

a	e	i	o	u	y	å	ä	ö
[ɑː/a]	[eː/ɛ]	[iː/ɪ]	[uː/ɔ/ʊ]	[ʉː/ɵ]	[yː/ʏ]	[oː/ɔ]	[ɛː/ɛ]	[øː/œ]

Consonants

b	c	ch	d	dj	f	g	gj	gn
[b]	[k/s]	[ɧ/ɕ]	[d]	[j]	[f]	[g/j]	[j]	[gn/ŋn]
h	hj	j	k	kj	l	lj	m	n
[h]	[j]	[j]	[kʰ/ɕ]	[ɕ]	[l]	[j]	[m]	[n]
ng	p	r	rd	rl	rn	rs	rt	s
[ŋ]	[pʰ]	[r]	[ɖʀl]	[ɭʀl]	[ɳʀn]	[ʂʀs]	[ʈʀt]	[s]
sj	sk	skj	stj	t	tj	v	w	x
[ɧ]	[sk/ɧ]	[ɧ]	[ɧ]	[tʰ]	[ɕ]	[v]	[w]	[ks]
z								
[s]								

구분	FRONT				BACK	
	UNROUNDED		ROUNDED			
	LONG	SHORT	LONG	SHORT	LONG	SHORT
HIGH	rita [riːta]	ritta [rɪtː]	ryta [ryːta]	nytta [nʏtːaˈ]	rota [ruːta]	rott [rʊtː]
(MID)	reta [reːta]		ruta [rʉːta]	rutt [rɐtː]	Råta [roːta]	
(MID)	räta [rɛːta]	rätt [rɛtː]	röta [røːta]	Rött [rœtː]		rått [rɔtː]
LOW	här [hæːr]		hör [hœːr]		rata [rɒːta]	ratt [rɑtː]

c = [s] before e,i,y
[k] elsewhere
ch = is pronounced [k] in the word och (and), or not pronounced at all
g = [j] before e,i,y,ä,ö
[g] elsewhere
gn=[gn] at the beginning of words, [ŋn] elsewhere
k = [ɕ] before e,i,y,ä,ö
[kʰ] elsewhere
sk= [ɧ] before e,i,y,ä,ö
[sk] elsewhere
rg=[rg,ʀg] before a,o,u,å
[rj, ʀj] elsewhere
lg= [lg] before a,o,u,å
[lj] elsewhere

https://omniglot.com

sj/sch/sk/skj/stj (sje-sound) varies throughout Sweden. In southern [xʷ] →ɧ͡ɧ
But in the north [ʂ] →ʃ͡ʃ

tj/k/kj (tje-sound") is [ɕ], but some speakers who have [xʷ] for the sje-sound have [ʃ] for the tje-sound.

과거 A.D 800-1100년 사이에는 Rune문자를 사용하여 스웨덴어들이 기록되었으며, 1526년 스웨덴 성경 번역과정에서 /æ/에는 ä, /ø/에는 ö가 사용되었고, 많은 단어에서 o는 å로 대체되었다. 모음은 동일철자라도 단어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는데, 모음나침반이 가르키는데로 ø/œ는 [ㅚ/ㅟ]로, ʉ는 [ㅠ]로 표기하였다. 스웨덴-r발음을 세분하면 trilled-r(ʀ)이 흔하고, tap-ɾ(초성ㄹ)도 있다. 모음뒤에 오는 weak-r은 종성ㅿ를 사용하고, 모음뒤 길게 발음되는 r은 종성ʀ을 쓰면 되겠으나, 종성위치 ʀ은 시인성이 좋지 않아 대신 [92][ㄹㅇ]를 사용하였다. 'Saknar inte dig'곡에서 **j**ag **d**ag **m**ig 등 –g로 끝나는 단어로 운율을 맞추는데 한글 역/딕/믹처럼 딱딱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여그/디그/미그 처럼 유성음 [g]의 어둡고 우물거림이 있는 소리여서, 유성性을 강조한 표기인 'ㄱ'를 사용하였다. 청탁개념으로 보면, 스웨덴어의 끝음처리에 무성폐쇄와 유성폐쇄에 대해 로만알파벳이 t/g를 동원했다면 正音에서는 초성이 무성일 때 종성ㅌ, 초성이 유성일때 종성ㄱ/ㅇ를 쓴 것이다. 스웨덴 모음사각도의 배치를 보면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eː/ɛ가 매우 가까워 ㅔ/ㅐ의 구별이 중요해 보이지 않고[93], uː/ʊ øː/œ도 서로 위치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正音로는 ㅜ/ㅟ ㅚ/ㅟ로 표기되는 발음들이다. 스웨덴 젊은 세대에서의 발음은 ø와 œ [ㅚ/ㅟ], ɛ와 æ[ㅐ/ㅿㅐ]의 구별이 allophone化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

92) trilled-r을 종성 표기해야 할 경우 här[hæːr]은 /햏→햃/으로, Skåne지역의 발음 här[hæːʁ]은 /햃/로 표기된다.
93) In many central/eastern areas (including Stockholm), the contrast between short /ɛ/ and /e/ is lost.

아래는 위키피디아의 swedish phonology 문서의 내용 중 모음부분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철자	장모음 (정밀전사)				단모음			
i	iː	ij	ㅣ	/siːl/ sil 'sieve'	ɪ	ㅣ̞	/sɪl/ sill 'herring'
e	eː	iɛ̝	ㅣ̞ㅖ/ㅖ	/heːl/ hel 'whole'	ɛ	ㅖ	/hɛl/ häll 'stone slab'
ä	ɛː	(æː)	ㅐ(ㆍㅐ)	/hɛːl/ häl 'heel'			
a	ɒː/ɑː		ㆍㅏ	/mɑːt/ mat 'food'	a	ㅏ	/mat/ matt 'listless; matte'
å	oː	ʊ̈	ㅗㅗ	/moːl/ mål 'goal'	ɔ	ㅗ	/mɔl/ moll 'minor key'
o	oː **ʉː**	uw	ㅗ̞ ㅜㅜ	/buːt/ bot 'penance'	ɔ **ʊ**	ㅗ̞ ㅜ̞	/bʊt/ bott 'lived' (supine)
u	ʉː	ʉᵝː	ㅜㅜ	/fʉːl/ ful 'ugly'	ɵ	ㅜㅡ	/fɵl/ full 'full'
y	yː	yɻ	ㅜ̞ㅣ·ㅟ	/syːl/ syl 'awl'	ʏ	ㅜ̞ㅣ	/sʏl/ syll 'sleeper'
ö	øː	[øˑ]	ㅚ	/nøːt/ nöt 'nut'	œ	ㅚ	/nœt/ nött 'worn'

Svenska



- 모음만 개별로 발음하는 음성파일보다 개별단어에서 해당모음과 IPA기호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동일한 IPA기호를 사용해도 모음의 실현(realization)은 다를 수 있고, 스웨덴에서는 단모음 뒤에 오는 자음은 길게 발음하여, 비슷한 발음의 장모음 단어와 전체길이는 비슷해지는 현상(V:C vs VC:)이 있고 단모음의 위치는 중설화 되는 경향이 있다. 원순모음을 발음할 때는 입술이 나팔꽃처럼 밖으로 벌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스웨덴에서는 endolabial이라 하여 입술을 잇몸쪽으로 말아서 발음하여 ㅜ/ㅗ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철자u(ʉː ɵ), 철자y(yː ʏ)에서 두드러진다. 북해주변의 나라 스웨덴/네덜란드에는 IPA모음표에는 등장하지만 평소에 본적 없는 ʉ ɵ ʏ의 소리가 있는데 이것의 정음표기 ㅜㅡ ㅗㅡ ㅜ̞ㅣ는 양모음이 먼저 음모음이 나중이라는 〈양률음려〉 규칙에서 벗어나니 노란색으로 칠하였다. ㅗㅡ는 ㅜㅡ를 수직으로 쓴 것과 혼동되고 ㅜ̞ㅣ는 시각적으로 ㅟ와 비슷해보인다.
- 모음은 구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혀가 들삭거리며 만들어 낸 연속된 스펙트럼이기에, 어떤 나라의 언어에 모음 발음기호의 갯수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세세히 나누고자 하면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중에서도 책의 중간에 나왔던 야구해설가나 유소년기를 해외 축구교실에서 보낸 해외파 선수의 인터뷰 녹음에서도 한국인의 귀에 낯선 모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네덜란드/스웨덴의 발음을 분석하는 것은 그 나라 소리를 정음표기해야 할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IPA와 正音체계를 비교하며 표에서 그간 비워두고 체크되지 않았던 부분을 채우는 목적이 크다. 스마트폰도 각자 통신 프로토콜을 정하고 메인 hz가 다르듯이 인간의 언어도 모음보다는 자음순서에 집착한 극단에 아랍어가 있고, 반대로 장음9개/단음9개 총 18모음을 빼곡히 사용하여 모음 장/단을 명확히 발음하지 않으면 유사단어를 구분할 수 없는 모음극단語가 있으니 북부 게르만語(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와 저지대(低地帶) 독일어의 표기에 수직/수평선 상하좌우에 dotting하여 모음을 표기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깔끔한 모음 표기법을 가진 正音으로 도전해 보자는 것이다.
- 장모음 표기:를 사용한 것이 공식기호이고, 정밀전사는 첨자나 두가지 기호를 병합했는데 이걸 보면 스웨덴 장모음이 monophthong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철자 å/o의 단모음은 /ɔ/로 표기되었는데, 일반적인 IPA /ɔ/보다 고설&후설 위치에서 조음된다고 한다. 들어보면 영어 /ɔ/보다는 'ㅗ'에 더 가까워 보인다. 현대한국어의 발음경향은 경구개음화여서 '굳이'를 [구디]로 발음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진 시대로 [구지] 발음에서 경구개음의 아이콘은 /ʝ/이다. ㄷ(d)+ʝ=ㅈ(dj) 반대로 중세국어는 혀를 목구멍 가까이 후설시켜 연한 입천장쪽에서 발음하니 연구개음의 시대이며, velarization의 아이콘

은 /ŋ/로서 ㅇ이며, 그래서 15c 훈민정음 표기에는 'ㅇ'가 흔하게 보인다. ŋ발음이 모음앞에 위치하는 언어는 베트남어/따갈로그어/광둥어/스와힐리어 등으로 한정되며 영어/프랑스어/스웨덴어에는 모음앞에 ŋ이 위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ㅇ를 고설&후설의 의미로 사용하여 스웨덴 /o/의 단모음을 [오]로 표기해 보았다. 필요하다면 스웨덴 /oː/를 [ㅗ오]로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swedish phonology에서 stop의 종류는 g d b k t p 6가지인데, 무성폐쇄 t가 단어끝에 올때 탈락하면서 거의 들리지 않을 경우 det [뎨]로 표기하였고, 음절폐쇄임을 명확히 표기하려면 [뎾] 정도로 표기하면 되겠다. 유성폐쇄 g는 jag dag mig 로 자주 보이는데 종성g를 broken-m [ᇂ]로 표기하여 역/믹/딕 보다 패쇄가 약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종성ㄱㄷㅂㆆ가 중간폐쇄이고, 종성ㄴㄹㅁㅿ는 약한패쇄, 종성ㅋㅌㅍㅎ는 강한 폐쇄라고 이론을 전개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것은 한글 종성에 익숙한 한국인이 스웨덴땅의 소리나 헝가리땅의 소리를 로만알파벳으로 전사(轉寫)[94]할 때, 끝음의 폐쇄 정도에 따라 正音종성을 세분화해서 사용하려는 시도일 뿐 전자(轉字)/ transliteration)를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번거로워진다.

Swedish consonants / **r** [ɾ]*은 trill-r이며 ᄅᄅ대신에 초성ᄅᇹ과 종성ᄅᅙ를 사용하였다.									
b [b] ㅂ	**c** [k/s] ㅋ/ㅆ	**ch** [ɦ/ɕ] ᄒᆡ/ᄉᆡ	**d** [d] ㄷ	**dj** [j] ㅑㅕㅛㅠ	**f** [f] ㆄ	**g** [g/j] 그(ᇂ)	**gj** [j] ㅑㅕㅛㅠ	**gn** [gn/ŋn] 그ㄴ/ㅇㄴ	
h [h] ㅎ	**hj** [j] ㅑㅕㅛㅠ	**j** [j] ㅑㅕㅛㅠ	**k** [kʰ/ɕ] ㅋ/ᄉᆡ	**kj** [ɕ] ᄉᆡ	**l** [l] ㄹ	**lj** [j] ㅑㅕㅛㅠ	**m** [m] ㅁ	**n** [n] ㄴ	**ng** [ŋ] ㅇ
p [pʰ] ㅍ	**r** [ɾ]* ᄅᇹ(ᄅᅙ)	**rd** [ɖ] ᅀᄃ	**rl** [ɭ] ᄅᅀ	**rn** [ɳ] ᄂᅀ	**rs** [ʂ] 싀	**rt** [ʈ] ᅀᄐ	**s** [s] ㅆ	**sj** [ɧ] ᄒᆡ	**sk** [sk/ɧ] ㅅㄲ/ᄒᆡ
skj [ɧ] ᄒᆡ	**stj** [ɧ] ᄒᆡ	**t** [tʰ] ㅌ	**tj** [ɕ] ᄉᆡ	**v** [v] ㅸ	**w** [w] ㅜ/ㅗ	**x** [ks] ㅋㅅ	**z** [s] ㅆ	1) sje-sound 2) tje-sound 3) r+d l n s t	

- [ɧ]를 정음으로 표기시 어떤 것이 근사값에 가까운지 생각해보면 3가지 단서가 있다. 첫째, 조음점이 velar column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x[ㆆ]가 필요하고, 둘째 sk= [ɧ] before e,i,y,ä,ö [ㅔㅣㅟㅐㅚ] 라는 설명에서 'ㅣ'를 포함할 것, 셋째로 입술을 동그랗게 내밀며 발음한다는 점에서 반모음w 같은 순음의 glide한 성질을 가질 것. 스웨덴 남부방언에서 sje sound가 [xʷ]로 표기된다는 점도 참고가 된다.
  단순히 [ᄒᆡ]성분으로 단어속 모음과 결합시키면 [x ㆆ]와 구분되지 않음으로 sje의 최종형태는 [ᄒᆡᅮ ᄒᆡᅰ ᄒᆡᅫ ᄒᆡᅯ]처럼 非동출합용 모음으로 표현해 보았다. tje 역시 쇄/술/실 처럼 非同出合用의 모음 조합이다.

sje ᄒᆡ → ㆆᄒᆞ (ᄁᆡ ᄑᆡ ᄭᆡ ᄢᆡ ᄦᆡ 꽈 꿔 꾸 끄)						tje ᄉᆡ → ㅅᄒᆞ	
sju	[ɧʉː ᄒᆡᅮ]	sked	[ɧeːd ᄒᆡᅰᄃᆞ]	skjorta	['ɧʊtːa ᄒᆡᅮᄐᆞᆺ]	tjej	[ɕɛj 쇄이]
sjuk	[ɧʉːk ᄒᆡᅮᆨ]	skina	['ɧiːna ᄒᆡᅰ나]	stjärna	['ɧæːɳa ᄒᆡᅫᄂᆞᆺ]	kjol	[ɕuːl 술/슈울]
själv	[ɧɛlv ᄒᆡᅦᆯᄇᆞ]	sky	[ɧyː ᄒᆡᅱ]	dusch	[dʊɧ ᄃᆞᄒᆡᅱ]	kemi	[ɕɛˈmiː 쇄미]
sjunga	['ɧʊŋːa ᄒᆡᅮᆼ야]	skön	[ɧøːn ᄒᆡᅱᅀᆞᆫ]	schack	[ɧak ᄒᆡᅢᆨ]	kina	['ɕiːna 쉬나]
sjö	[ɧøː ᄒᆡᅬᆞ]	skära	['ɧæːra ᄒᆡᅢᄅᆞ]	sjåpig	[ɧ'oːpɪg ᄒᆡᅩᆞᄈᆡᆨ]	kyl	[ɕyːl 실]

94) 전자(轉字, transliteration)는 한 문자 체계를 다른 문자 체계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하며 전자한 후에 원래의 문자 체계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한 언어의 말소리를 특정 문자로 표기하는 전사(轉寫, transcription)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2)은 전사법과 전자법 두 가지를 모두 담고 있다. 전사법은 읽기 편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글과 발음이 다르면 이를 반영하는 반면,(웃옷[우돋] → udot) 전자법은 학술 논문 등에 쓰기 위해 원래 한글을 오류 없이 복원할 수 있는 표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표기를 한다.(웃옷 → us-os)